



4면

전북교육 대전환 2년, 교사에게 듣는다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음 6월 5일) 제354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바이오산업 육성 멈출 수 없다

전북자치도, 기업유치·R&D 지원 등 향후 방안 밝혀 전담팀 신설... 연구기관·대학·병원 등과 긴밀 협력

전북자치도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첨단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북 바이오 산업 현황

전북자치도는 그간 지역에 특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주시는 혁신 의료기기(메카노바이오, 탄소 소재), 정읍시는 정읍상인프라(영장류, 독성 등) 강화, 익산시는 식품과 동물용 의약품, 남원시는 천연물 소재와 화장품 산업에 집중했다.

이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산업 기반인 전임상 지원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 탄소 소재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센터, 화장품 코스메틱 비즈센터,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우수화장품 제조시설, 인공공통전염병연구소,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순차적으로 메카노바이오화성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센터,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메카노바이오헬스 혁신 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첨단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사업을 추진하며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

7월 초에는 바이오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전북자치도 조직을 바이오방위산업과로 개편(전담팀 1개 신설)했으며, 국내외 연구기관 및 대학·병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전북의 바이오 산업 감점

전북자치도는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로서 그린바이오 기반이 탄탄하다. 정부에서 인정한 6대 그린바이오 산업(식품, 농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4개)을 갖추고, 농

식품 기능성 소재, 미생물 소재, 한의약 소재, 마이크로바이옴 등 146만 종의 DB를 보유하는 등 그린바이오에 강점이 있어 그린바이오를 고도화한 레드바이오 산업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다.

도내에는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 27개소를 비롯해 수도권 이외 지역 중 의대·약대·한의대 관련 학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급병원 2개소(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를 포함해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14개 종합병원이 소재, 향후 수준 높은 병원 인프라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 및 시장 확장에도 강점이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북특별법 특례 조항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빠른 행정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에 들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MIT, 하버드, 존스 홉킨스, KIST 유럽연구소 등)를 바탕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등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수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

전북자치도에 있는 바이오 입주기업(예정기업 포함)은 97개사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 및 고용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연 30개사의 바이오 기업 유치를 목표로 전담팀(TF)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전북자치도는 동물용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특화산업분야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돼 향후 첨단 산업 육성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펩티드 등과 관련한 첨단바이오 기술

기반 동물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혁신 특구, 건강기능식품 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 자유 특구 등 규제 특례를 통한 기업유치를 위해 특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2024년 현재 136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2025년에는 지역의 우수자원과 강점을 살린 R&D 특구 내 그린·레드·화이트 바이오 등 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모델을 육성을 위한 전국 최초 특구 연계 지방비역 매칭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부처와 국비 확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RIS 및 글로벌 사업과 연계한 바이오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유망 의료영역으로 부상 중인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의료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 초격차 원천 기술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기획,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 연구기관들과 공동 발굴한 오가노이드와 관련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내외 산업 현황 분석 및 추진전략 도출, 타당성 분석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수립 등 전반적인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전문가에 운영을 의뢰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외, 기업 수요에 맞는 장·단기 인력 및 글로벌 핵심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공급 플랫폼 구축 등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생명 경제 바이오 열라이언스 활성화를 통한 분야별 역할과 기능 제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 해소 등을 위해 기업간담회 및 포럼, 세미나 등을 열고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 국장은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해 인프라, R&D, 인력양성, 기업지원, 규제 완화를 아우르는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호 기자

물에 잠긴 흔적 가득한 비닐하우스



도내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9일, 익산시 망성면에서 한 농부가 비에 잠긴 방울토마토 비닐하우스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오늘까지 도내 최대 120mm 강한 비

어제 오후 5시 현재 최대 149.7mm 내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익산 용동·망성 일대 비닐하우스 20ha 침수

전북자치도, 재대본 비상 1단계 가동 중

도내 4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9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을 기해 고창과 부안, 임실, 정읍 등 4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남은 10개 시군에는 호우 예비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전북 주요지점에 대한 누적강수량은 정수 149.7mm, 임실 신덕 145.5mm, 정읍 태인 126.5mm, 부안 변산 123.5mm, 무주 덕유산 108.5mm, 완주 구이 106.5mm, 진안 91.5mm, 고창 심원 70.0mm, 김제 69.0mm, 전주 완산 69.0

mm, 익산 59.3mm, 순창 북흥 50.5mm, 군산 선유도 46.0mm, 남원 40.9mm 등이다. 이번 비는 10일까지 30~80mm의 비를 더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곳은 120mm 이상 뿌리는 곳도 있겠다.

이번 비로 전북에 피해도 잇따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익산 용동·망성면 일대 비닐하우스 20ha(상추·토마토·수박)가 침수됐다.

이날 오전 6시 57분경에는 부안군 진서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이 배수작업을 했다. 또 장수와 남원, 정읍 등에도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고 신호기가 고장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5개 분치주차장과 국립공원 등 탐방로 7개소를 통제하고 있다.

전주시상지청 관계자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 금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자치도,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8,8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민간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단계별 재난 관리실태 42개 지표에 대해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는 기관장 인터뷰 배점이 크게 상향돼 실제 재난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와 역량을 평가했고, "과할 정도로 선제 대응하라"는 지문을 강조한 김관영 지사의 재난관리에 대한 의지가 높게 평가됐다.

전북자치도는 행안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되며, 평가결과를 지표별로 중점 분석·개선점을 파악해 더 안전한 전북 구축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민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자음길

정읍 핫플레이스
정읍천 미로분수 운영

시원한 여름을 부탁해

장소

정읍천 미로분수
(시기동 225-3번지)

미로분수 운영시간

구분	운영시간	연출시간
음악분수(평일)	2회(19시-20시)	20분
음악분수(주말)	3회(19시-20시-21시)	20분
물놀이장	10시-18시	40분

★ 매주 월요일은 시설관리를 위해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